

#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국제미래교육위원회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 유네스코 - 세계 교육을 이끄는 선도 기관

유네스코는 기본적인 인권이자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인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유엔전문기구로서 유네스코는 교육 분야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전 세계 및 지역 단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모든 학습자를 위한 국가 제도의 회복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유네스코는 모든 활동에서 성평등과 아프리카에 특히 중점을 두면서 변혁적 학습(transformative learning)을 통해 현재 세계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 ‘교육의 미래’(Futures of Education) 이니셔티브

국제미래교육위원회는 지식과 학습이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다시 구상하기 위해 2019년 유네스코가 발족했습니다.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는 광범위한 공공부문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복잡성과 불확실성, 취약성이 점차 높아지는 세계에서 교육을 어떻게 재검토해야 할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발간 2021년, 유네스코(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 UNESCO 2021

ED-2021/WS/20



이 출판물은 오픈 액세스 정책에 따라 다음의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ttribution-ShareAlike 3.0 IGO (CC-BY-SA 3.0 IGO)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igo/>). 이 출판물의 내용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UNESCO Open Access Repository의 이용약관 ([www.unesco.org/openaccess/terms-use-ccbysa-en](http://www.unesco.org/openaccess/terms-use-ccbysa-en))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출판물에 나오는 명칭과 자료는 특정 국가, 영토, 도시, 지역이나 지역 당국의 법적 지위 또는 국경이나 경계의 확정에 관한 유네스코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 출판물에 포함된 사실의 선택과 제시 및 의견 표명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 내용은 유네스코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유네스코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국제미래교육위원회의 작업은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SIDA), 프랑스 정부, 산탄데르 은행(Banco Santander)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

#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

국제미래교육위원회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요약본

지금 세계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 우리는 지식과 학습이 재건과 변혁의 기반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불거진 각종 격차, 그리고 이제 학습의 이유와 방식, 내용, 위치, 시기를 다시 규정해야 한다는 다급한 요구는 교육이 우리가 평화롭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겠다는 약속을 아직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자연환경에 큰 부담을 주었고, 결국 우리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늘날 세계에는 높은 생활수준과 아찔한 불평등이 공존하고 있다. 점점 많은 사람이 공적인 생활에 참여하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기본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급속한 기술 변화는 우리 삶의 여러 측면을 변모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혁신의 방향은 적절하게 공정과 포용, 그리고 민주적인 참여로 향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각자는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 무거운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이란 우리 세계가 결핍이 아닌 풍요의 세계, 모두가 동일한 인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세계가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비록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고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히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다**. 지금의 인류는 전체 역사를 통틀어 지식과 협력을 위한 도구에 대한 가장 높은 접근성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지금처럼 높았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본 국제미래교육위원회 보고서는 2050년과 그 이후를 내다보면서 교육이 이 세계와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를 형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의 제안은 2년간의 세계적 참여와 공동작업(co-construction) 과정을 통해 나온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공유하는 이 지구에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학습 공간을 다시 구상하는 방법에서부터 교육과정의 탈식민지화와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의 중요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의 기여가 담겨 있으며,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허위정보, 디지털 격차에 대한 사람들의 실제적이고 점차 커져가는 두려움도 반영돼 있다.

교육, 즉 우리가 일생을 통해 가르침과 학습을 수행하는 방식은 오랫동안 인간사회의 변화의 기반이 되어왔다. 교육은 우리를 세계와, 또한 서로와 연결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대화와 행동을 위한 우리의 역량을 높여준다. 하지만 **평화롭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그 자체에도 변혁이 필요하다**.

##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교육은 사회계약, 즉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려는 사회 일원들의 암묵적 합의라는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사회계약은 공식적으로 법제화되고 문화적으로 내재된 규범과 약속, 원칙을 반영하기 때문에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 출발점은 교육의 공공 목적에 대한 공동의 비전이다.** 이 계약은 교육제도와 이를 구축, 유지, 개선하기 위해 분배된 작업을 구조화하는 기초적이고 조직적인 원칙들로 구성된다.

20세기의 공공 교육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의무 교육을 통해 국가의 시민권과 발전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렇지만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현재의 우리가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급히 **재창조해야만 한다. 여기서 재창조라 함은 공유되고 상호의존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우리를 통합시켜 집단적 노력에 동참하게 만들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정의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과 혁신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동시에 그 계약은 이 보고서가 강조했듯 교사의 역할을 옹호해야 한다.

2050년을 바라보면서 교육에 대해 던져야 할 세 가지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중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창의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기본 원칙

모든 새로운 사회계약은 인권, 즉 포용과 공정, 협력, 결속, 그리고 집단적 책임과 상호연계성을 뒷받침하는 광범위한 원칙들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 두 가지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 **전 생애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세계인권선언 26조에 규정된 교육권은 여전히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기초를 이뤄야 하며, 전 생애를 통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 문화, 과학에 대한 권리와 대대로 축적되고 계속 변모하는 인류의 집단 지식 자원인 공유지식(knowledge commons)에 접근하고 기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야 한다.
- **공공의 노력과 공동재(common good)로서의 교육의 강화.** 공동의 사회적 노력으로서 교육은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게 해준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은 교육에 대한 공공 자금의 투입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교육에 관한 공적 토론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교육은 공동재(common good), 즉 함께 선택하고 성취하는 공유하는 웰빙(shared well-being)의 형태로서의 의미가 더욱 커진다.

이 원칙들은 인류가 지금까지의 성취를 이루게 해준 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제 2050년과 그 이후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도 교육이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미래를 다시 상상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과거의 약속과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증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지구의 경계를 넘어서는 자원 남용, 민주주의의 퇴보, 파괴적인 기술 자동화 등이 현재 우리가 놓여있는 역사적 시점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처럼 많은 중복된 위기와 도전과제들은 우리의 개인적, 집단적 인권을 제한하고 지구상의 많은 생명에 손상을 입히고 있다. 교육제도가 확대되면서 많은 이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양질의 학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보다 더 어두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별로 남지 않은, 고갈된 지구의 모습도 상상할 수 있다. 극단적인 미래 시나리오 중에는 양질의 교육이 엘리트의 특권이 되고 다수의 집단은 필수품과 기본 서비스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상상할 수도 있다. 현재의 교육 불평등이 점점 더 악화되고, 결국 교육과정이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닐까?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지만 그 어떤 추세도 그대로 운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여러가지 모습의 미래가 올 수도 있으며, 몇 가지 핵심 분야에서 이미 서로 상충하는 변화(disruptive transformations)가 감지되고 있다.

- 지구는 위험에 빠져 있지만 탄소 중립과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앞장서서 의미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맞서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
-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정치가 퇴보하고 민족주의에 기반한 포퓰리즘이 확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차별과 불의에 맞선, 보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활동도 두드러졌다.
- 디지털 기술에는 엄청난 변혁의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으나, 우리는 이 커다란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 인공지능(AI)과 자동화 및 구조적 변화가 세계 각국의 고용 환경을 바꿔 놓으면서 바람직한 인간 중심 노동(human-centered work)을 창출하는 과제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더 많은 대중과 공동체들이 돌봄 노동의 가치와 다양한 경제적 안정 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 새로운 문제점들은 모두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결국 앞으로 나타날 결과는 우리가 함께 교육을 통해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우리가 교육을 조직하는 방식들은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 건강한 지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의 발전을 보장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실제로 우리가 겪는 문제의 일부는 교육 방식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학습과 학생, 교사, 지식,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 교육 재건을 위한 제안

**교육의 방식은 협력과 공동 작업, 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며 공감과 연민을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적·사회적·도덕적 역량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편향성과 편견, 구분(divisiveness)에 대한 탈학습(unlearning)도 필요하다. 평가는 모든 학생들의 의미 있는 성장과 학습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런 교육학적 목표들을 반영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지식을 얻고 생성하면서 동시에 이를 비판하고 활용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생태적·다문화적·다학제적 학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인류에 대한 생태학적 이해를 수용하고, 살아있는 행성이자 단 하나의 고향인 지구와 우리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새로운 균형을 찾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사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과학적·인문학적·디지털 문해(digital literacy)를 통해 잘못된 정보의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 교육 콘텐츠와 방법 및 정책에서 적극적인 시민의식과 민주적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교수 행위(teaching)는 교사들이 지식 생산자이자 교육 및 사회 변혁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는 공동의 노력으로서 보다 전문화되어야 한다.** 공동 작업과 팀워크가 교사 업무의 특징적 성격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성찰(reflection), 연구, 지식 창조와 새로운 교수법이 교수 행위의 필수요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의 자율성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교사가 교육의 미래에 대한 공공 토론과 대화에 전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학교는 포용과 공정, 개인 및 집단의 웰빙을 지원하는 교육 장소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그 모습을 다시 구상해야 한다.** 학교는 다양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데 모아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도전과제와 가능성에 노출시켜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개별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가능케 하도록 학교의 구조, 공간, 시간, 시간표, 학생 그룹 분류방식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학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학교는 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의 본보기가 됨으로써 우리가 열망하는 미래의 모습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전 생애에 걸쳐,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공간에서 교육 기회를 향유하고 확대해야 한다.** 누구나 인생의 그 어떤 시기에서든 의미 있는 양질의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한다. 우리는 자연, 건물, 가상 공간의 학습 장소들을 연결해 각 장소별 최고의 잠재력을 세심하게 활용해야 한다. 가장 큰 책임은 교육에 대한 공공자금 투입과 규정을 강화할 능력을 가진 정부에 있다. 교육권은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정보, 문화, 과학 및 연결성에 대한 권리를 포괄해야 한다.

##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촉진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은 가능하다. 우리는 수백만의 개인과 집단의 용기와 리더십, 저항, 창의성, 관심을 통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사회계약은 차별과 소외, 배제를 극복해야 하며, 우리는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나이, 시민권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 그리고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대한 깊은 헌신이 필요하다.

**연구와 혁신을 촉구한다.**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해 전 생애에 걸친 교육권에 초점을 둔 전 세계적인 공동 연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권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수평적 학습과 국가 간 지식교류 등 다양한 **앎(knowing)**의 근거와 방식을 포함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 학자와 연구소,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이들의 기여를 독려해야 한다.

**세계적 연대와 협력을 촉구한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해서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 간의 보다 정의롭고 공평한 협력을 전제로, 공동재(common good)로서의 교육을 지지하는 세계적 공동 작업에 대한 새로운 헌신이 필요하다. 선진국이 개도국의 교육을 지원하는 북-남 지원을 넘어 남-남 및 3자 협력을 통해 지식과 근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달성에 필요한 공동의 목표와 규범, 기준에 따라 함께 보조를 맞추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때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을 존중하고 지방·국가·지역적 노력을 독려해야 한다. 특히 망명 신청자, 난민, 무국적자, 이주민의 교육적 요구를 국제 협력과 관련 기관들의 활동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대학과 기타 고등교육기관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모든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연구와 과학 발전 지원에서부터 소속 공동체와 전 세계 기타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을 위해 기여하는 파트너 역할에 이르기까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공동재로서의 교육의 강화에 전념하는 대학들은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어린이, 청소년, 부모, 연구자, 활동가, 고용주, 문화 및 종교 지도자를 포함한 **모두가 교육의 미래 건설(building the futures of education)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깊이 있고 풍부하며 다양한 문화적 전통은 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뛰어난 집단 행동력과 지성, 창의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대로 지속 불가능한 여정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세 가지 필수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만들어졌다.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중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창의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지만 **여기서 제안한 것들은 그저 출발점일 뿐이다.** 이 보고서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생각과 상상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의 지역사회와 국가, 학교, 그리고 모든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제도는 이들 질문을 검토하고 여기에 응답해야 한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발 간 일** 2021년 12월 15일  
**펴 낸 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 낸 이** 한경구  
**주 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자우편** ed.team@unesco.or.kr  
**웹사이트** www.unesco.or.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ED-2021-BK-5

본 국문번역본은 유네스코의 공식발간물이 아니며 그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본 발간물은 유네스코의 발간물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를 국문번역하고 ‘Attribution-ShareAlike 3.0 IGO’ (CC-BY-SA 3.0 IGO) 라이선스를 활용하여 발간하였습니다.

---

##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인류와 지구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 경로를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다시 구상하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긴급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간 교육은 긍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강력한 힘으로 인정받아 왔지만, 이제 다시 새롭고 급박하며 중요한 일을 맡아야 한다. 국제미래교육위원회는 약 백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한 세계적 협의 과정을 통해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 모두를 위한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정부, 기관, 단체, 시민들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

보고서에는 디지털 기술과 기후변화, 민주주의의 퇴보, 사회 양극화, 노동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심층적인 성찰도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고 대화에 나서도록 이끌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행동에 나서도록 자극하고자 한다. 결국 지금의 경로를 바꾸고 교육의 변화를 통해 정의롭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수백만의 개인과 집단의 용기와 리더십, 저항, 창의성과 관심이기 때문이다.

---